

민주당 공천률 내년 2월께야 윤곽

■ 6개월 앞 19대 총선 변수 수두룩

선거구 확정 여수감·을 통합 여부도 관심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은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 정당의 공천률과 야권 대통합 및 연대, 선거구 확정, 선풍돌레 도입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큰 혼란 속에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공천률 '오리무중' =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의 공천률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전반적인 선거 판세를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률은 야권 대통합 및 야권연대 등과 맞물려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야권 대통합 및 야권연대의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공천률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내년 총선 입지자들은 일단은 바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움직임에 주시하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내에 민주당의 공천률이 정해지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야권 통합 및 야

권 연대 논의가 우선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천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중순에 논의가 시작돼 2월께야 공천률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야권 대통합 및 야권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공천률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권 대통합, 야권연대 촉각 =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대통합과 야권연대 여부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야권 대통합 및 야권연대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야권 대통합보다는 야권 연대가 현실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야권연대의 방식이다. 특히,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에 대한 양보 요구가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야권연대가 이뤄지더라도 지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은 경선 방식이 도입



광주시-민주당 정책간담회

광주시는 9일 시청에서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UN대학 부설연구소 유치, 세계아리랑축제 개최 등 17개 신규 사업(980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7개 추가 사업(3402억원)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가 4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될 것으로 거론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예비 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나 공석인 지역구가 야권연대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선거구 확정 = 선거구 확정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달 6일 내년 총선의 지역구 획정을 논의하는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개의 선거구로 나

뉘어져 있는 여수가 1개로 통합되느냐가 관심사다. 경우에 따라, 광주 선거구도 조정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에 비해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의 경우 광주(8곳)보다 적은 6곳이어서 광주 선거구도 조정 대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 규정상 국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 규정상 국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 규정상 국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 규정상 국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 광주·전남 19대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구	이름	정당	나이	대표경력	선거구	이름	정당	나이	대표경력		
◆ 광주	동구	김상호	진보	48	광주시당 부위원장	순천	노관규	무	52	순천시장	
	박주선	민	61	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철		52	경기도 교수			
	박현민	민	59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순용		61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양형일	민	60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허성만		68	전 농림부장관			
	임택	참여	48	전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허신		58	전 공정의 사무처장			
	송갑석	민	46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허신행		69	전 농림부장관			
	정동채	민	62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광영		한	72	한나라당 협회 위원장		
	정홍화	한	48	전 청와대 비서관	김승규		민	66	전 국정원장		
	조영택	민	60	민주당 국회의원	신홍섭		민	67	전 도의원		
	김영진	민	64	민주당 국회의원	안준태		민	60	전 부산 교통공사 사장		
서구	서대석	참여	50	전 청와대 비서관	이승태	민	59	전 해양경찰청장			
	신현구	민	53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유영근	민	55	민주당 국회의원			
	오병윤	민노	54	민노당 전 사무총장	유현주	민노	40	전남도의원			
	이병재	민	44	민주당 대표 비서실 차장	정동채	민	57	전 전남 경찰 청장			
	이성환	한	54	한나라당 의원	나주	박선원	민	48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정남준	56	전 행정안전부 차관	배기운		민	61	전 국회의원			
	조용진	민	59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최인기	민	68	민주당 국회의원			
	남구	곽정숙	민	52	민주당 국회의원(비례)	담양	국형근	민	73	전 국회의원	
		김영진	민	48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영일	한	65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윤정	민	57	전 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김재두	민	45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동국		49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계호	52	전 전남지사 후보					
정병완		민	59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	57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부덕		진보	46	치과원장	윤정식	민노	57	민노당 전남도당위원장			
북구		김기정	민	49	민주당 국회의원	박재천	민	74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진	민	46	변호사	박재순	한	66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오현근	민	51	성형외과 의사	신정식	민	73	전 국회의원		
		이형석	민	49	전 청와대 비서관	장성민	민	49	전 국회의원		
	이재연	민노	60	전남대 교수	장철호	53	변호사				
	임원호	55	광주교육대 교수	장홍호	민	53	전 청와대 행정관				
	북구	김재균	민	58	민주당 국회의원	진준근	무	64	전 고령군수		
		윤민호	민노	41	민노 광주시당위원장	영암	국경애	민	60	전 전남도의원	
		임내현	민	58	변호사		김영진	민	57	전 EBS 부사장	
		최정주	민	50	전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김영진	민	53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경환		민	51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신승남	민	68	검찰총장			
안영돈		진보	50	북구 당협회의위원장	유선호	민	59	민주당 국회의원			
광산		김동철	민	56	민주당 국회의원	유인학	민	73	전 국회의원		
		전갑길	민	55	전 국회의원	황주홍	60	강진군수			
		정찬용	참여	60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일태	민	68	영암군수		
		광산	이용섭	민	60	민주당 국회의원	해남	김봉욱	64	국세대학교 교수	
	장연주		민노	42	광주시민센터 공동대표	진도		김영록	민	57	민주당 국회의원
	◆ 전남	목포	박지원	민	70	민주당 국회의원	완도	김충철	민	58	대안그룹 부회장
		배중호	51	KB스타일링 회장	민병록	민	57	효산그룹 회장			
		문소하	민노	51	전위원장	박광운	54	MBC는설위원			
		최성복	한	49	목포당협위원장	양종갑	67	경희대 교수			
		여수	김용주	참여	50	전남도당 위원장	윤재규	전 해군 소장			
김성곤			민	60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호	52	전 국회의원			
김충조			민	68	민주당 국회의원(비례)	무안	김홍업	민	62	전 국회의원	
주병심			한	66	여수갑 당협위원장		백재욱	민	47	민주당 중앙위원	
여수			김광민	민	65	전 검찰총장	신안	서상석	민	53	무안군수
			주승용	민	60	민주당 국회의원		이윤석	민	52	민주당 국회의원
	서석주		63	전 노동청 여수지청장	주태문	민		47	민주당 민원실 국장		
	심정우		한	53	당협위원장	한갑갑		평민	73	전 국회의원	
	김경호		46	제주대 교수	영광	이낙연		민	60	민주당 국회의원	
	순천		구희승	무		48		변호사	함평	이석형	민
김선동		민노	46	민주당 국회의원	장성						

* 한 = 한나라당, 민 = 민주당, 민노 = 민주노동당, 참여 = 국민참여당, 진보 = 진보신당, 평민 = 평화민주당, 무 = 무소속
* 소속정당이 공천된 경우는 정당명을 이칭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



야권 대통합 논의 다시 불붙나

'혁신과 통합' 통합추진 설명회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는 기존 정당 밖의 '혁신과 통합'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적 통합정당'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야권대통합 논의가 '혁신과 통합'의 이번 제안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를 거둘 경우, 야권대통합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혁신과 통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야권통합과 2012년 승리를 위한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 방안에 대해 제안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혁신과 통합은 '혁신적 통합정당'은 복지와 삶

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 주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혁신적 국민정당'이며 각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진보 연합정당'이라고 밝혔다.

혁신과 통합 관계자는 "혁신적 통합정당은 기존 정당의 구조와 체제, 당원제도를 인정하는 시스템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정당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연합정당 성격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적 통합정당은 기존 정당의 폐쇄적 구조를 개방적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도 지향점으로 알려졌다.

혁신과 통합은 이번 제안설명회에 이어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본격화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등 공론화 작업을 통해 10월 재보선 이후 혁신적 통합정당 추진기구 건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Yonhap International Press Photo Awards
In support of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Gold Prize/ Bethany Jane CLARKE
Bethany Clarke Photograph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hare the Moment, Share the Future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유엔-연합뉴스 국제보도사진전

2011. 10.10 (월) ~ 10.23 (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홀(로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합국제보도사진전은 유엔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유엔의 빈곤퇴치 및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www.yippa.net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DGs) 소개

- 오시는 길 : 김대중컨벤션센터(마복역)하차 - 5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
- 문 의 : TEL. 02-568-3208 FAX. 02-3452-7292 E-mail. yippa@yna.co.kr

주최: 연합뉴스

후원: 유엔,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